

金得臣의 生涯와 文學的 背景

임동철(충북대)

I. 모색의 필요와 방향

柏谷 金得臣(1604 : 宣祖37년~1684 : 肅宗10년)은 17세기 초에 나서 17세기 후반까지 살았던 詩人인 동시에 批評家이다. 그가 활동했던 시대는 조선조 後期로 접어드는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이며 18세기에 꽃피웠던 實學의 정신적인 축적기이기도 하다.

이 시기는 壬·丙兩亂 후로 振作된 제도적 모순과 이념적 경직성에 회의와 반성기로, 脫朱子主義와 함께 實學의 기풍이 일기 시작하며 통치질서의 동요는 물론, 정통 한문학에도 새로운 文風이 제고 되던 때다. 허균에 의하여 싹튼 脫朱子學的 의식은 漢文四大家 중의 李廷龜, 申欽, 張維로 이어졌고, 이수광은 사실주의적 문학관을 피력하기도 했다.

특히 문학비평 쪽에서 정통 한문학을 고수하고자 하는 문사들은 載道·貫道論을 답습할 뿐 발전적이거나 새로운 비평의식을 제시하지 못한 반면에, 개량주의자들은 심각한 이론을 제기하고 있었다. 예컨대 정통 문사들이 시를 ‘性情的 발로’라 한데 비해 이들은 ‘天機의 발로’라 했는가 하면, 張維도 작품의 평가 기준은 道가 아니라 美라 했으며¹⁾ 작품의 사실성을 평가의 핵으로 삼은 이수광은 사실주의 비평을 전개해 나갔다.

이렇듯 조선 후기에는 文人들 사이에 서로 다른 문학관으로 말미암아 문학관의 혼란상을 보이기도 하지만 그런 양상은 그 시대 문학정신의 다양함과 문학에 대한 문인들의 폭넓은 관심을 대변해 준 것으로, 이런 조선 후기를 문학관에 있어서의 갈등과 방황의 시대인 동시에 새로운 미래지향적 문학관의 摸索의 시대로 보기도 한다.²⁾

金得臣은 혁신적인 文人은 아니지만, 적어도 시대적 思潮에 대응하는 문학정신을 가지고 진보적인 詩意識을 가진 批評家이자, 수준있는 감식안을 가진 詩人이기도 하다. 그는 詩話集 《終南叢志》를 통해 나름대로의 批評世界를 전개했는데, 이는 한국고전비평사의 맥락을 파악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는 詩를 인위적이며 도식적인 형식미보다는 내용의 진실성과 사실성에 기준을 두는 天機論的 詩意識을 제시하였는가 하면, 그의 문집 『柏谷集』에서는 詩의 本質을 알기 위해서는 妙悟의 단계를 거쳐야 감식안이 생긴다고 역설하기도 했으며, 그 자신 또한 참된 시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타고난 文人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魯鈍해서³⁾ 困而知之한 경우로 苦吟과 多讀으로 유명한 인물⁴⁾이기도 하다.

1) 金甲起《批評文學의 展開》『清大漢林』5집 (청주대 한문교육학과, 1992. 4.) 20쪽 참조.

2) 鄭大林,《韓國古典批評史4》『京畿語文學』9집 91. 8) 95쪽 참조.

3) 『柏谷集』韓國文集叢刊 104 (민족문화추진회, 93.11) 附錄, <墓碣銘> 226쪽 “幼而魯”, <行狀草> 227쪽 “是兒質魯, 雖如此” 및 『小華詩評』(下) “金栢谷得臣, 才稟甚魯”, 그리고 《終南叢志》 “余性魯鈍” 등 여러 곳에서 그의 天稟이 노둔했음을 알 수 있다.

金得臣이 연구의 대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초기부터 일어난 한국 고전시론 연구가 진행되면서 고전 시론의 基底가 되는 여러 문인들의 개별적인 시론에 관한 연구가 전개되면서부터 이다. 많은 문인들의 시론을 통한 批評史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詩話集에서부터 개인문집을 통한 연구로 점점 활기를 띠게 됐고, 김득신의 시론 또한 고전시론에 관한 여러 논문에서 단편적으로 다루어 졌다.

이에 본고에서는 조선 후기의 중요한 시인이며 비평가로서 주목을 받고 있는 金得臣의 생애를 고찰하면서 그것이 작품 속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한 시인의 작품을 이해하는데 일조가 되면서 아울러 지역문화의 뿌리를 探索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자 한다.

4) 『柏谷集』中 박세당의 序文 등 여러 곳에 실려있거니와, 그의 勉學 자세는 學者의 龜鑑이 되어 고등학교 『漢文』 교과서 (천재교육, 1996, 69쪽 및 한샘출판, 1996, 89쪽)에 실리기에 이른다.

II. 그 삶과 背景

柏谷 金得臣의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생애를 깊이 있게 고찰할 필요가 있다. 작가의 작품이라는 것은 결국 그의 환경이 투영된 것이고 환경에서 만들어진 그의 인생관이 발현된 것이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김득신의 생애를 순차적으로 정리하면서 그의 시대를 정확히 그려내고 있는 詩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家系와 生涯

金得臣은 宣祖 37년(1604) 10월 18일에 출생하여 光海君·仁祖·孝宗·顯宗을 거쳐 肅宗 10년(1684) 8월 30일⁵⁾에 卒하니 世壽 81이다. 字는 子公이고 호는 柏谷⁶⁾ 또는 龜石山人⁷⁾이라 했다.

그의 貫鄉은 安東으로 高麗朝의 名將 忠烈公 金方慶이 14代祖이자 中始祖이며 提學公(益達)派의 10代孫이다. 그의 9代祖 金顯은 左司諫을 지냈고, 高祖인 金錫은 中宗代에 進士에 급제하고 靜庵 趙光祖의 門人으로 道學이 높았다고 한다.⁸⁾ 그에게는 五甲으로 알려진 5명의 아들이 있었으니, 長子 忠甲은 司憲府持平·獻納·北評事·安岳郡守 등을 역임한 晉州牧使 金時敏의 아버지이자 柏谷의 曾祖이다. 壬亂때 三大捷의 하나인 晉州城 싸움을 승리로 이끈 忠武公 金時敏은 6형제의 셋째로 後嗣가 없는 까닭에 伯兄인 富平府使 金時晦의 四男으로 양자를 삼으니 이가 바로 柏谷의 아버지인 南峯 金緞(1577~1625)이다. 金緞은 宣朝때 謁聖文科에 丙科로 급제하여 承文正字를 시작으로 侍講院說書에 이어 兵曹佐郎·黃海道御史·弘文館修撰·持平·鏡城判官을 역임하고, 光海君 때에는 濟州判官·正言·兼司書·司僕正·慶尙右道均田使·大司成·大司諫·吏曹參議·刑曹參議·工曹參議·同副承旨·右副承旨·兵曹參知를 두루 거친다.⁹⁾ 한편 李爾瞻·鄭仁弘 등의 翁傭에 힘입은 光海君은 宣祖에 이어 즉위하자 朱子學的인 士林政治가 富國強兵에는 무력하다고 보고 北人을 등용하니¹⁰⁾ 이에 北人은 정권의 기반을 구축하게 되고 광해군의 비호아래 李爾瞻은 자기 측근을 끌어들여 大北의 세력을 강화시키려 했다. 이때 김치는 그의 心腹의 일파로 지목받게 된다. 그러나 인목대비를 폐위시키는 등의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러서는 뜻을 달리하여 稱病하고 낙향한다.¹¹⁾

西人의 主導로 일어난 仁祖反正 뒤에는 大北으로 몰리기도 하지만, 김류의 강력한 推薦에 힘입어 東來부사로 拔擢되고 2년 뒤에는 慶尙監司가 되는데¹²⁾ 安東지방을 巡視하던 중에

5) 墓碣銘에는 29일로, <行狀草>와 『安東金氏大同譜』에는 30일로 되어 있다.

6) 『柏谷集』, 韓國文集叢刊 104 (민족문화추진회, 93. 11) <記聞錄> 238쪽 “公居木川栢田, 故號栢谷…” 以後로 『柏谷集』에 실린 金得臣의 詩文의 註는 題와 쪽수만을 표기함.

7) 槐山郡 소재 좌구산 아래 龜石山村에서 寓居할 때 稱號한 것이라 함.

8) 『人物誌』 (충청북도, 1987) 783쪽 참조.

9) 『朝鮮王朝實錄』 (국사편찬위원회, 1970. 8) 권23 「宣祖實錄」 ~ 권33 「光海君日記」 참조.

10) 邊太燮, 『韓國史通論』 (삼영사, 1992. 2) 336쪽

11) 『安東金氏大同譜』 卷之五 提學公派 (1980. 8) 206쪽~207쪽 “…當光海廢母后時, 退居龍湖六年…”

<府君行狀> 188쪽 “…廢大妃議起, 府君不勝憤慨, 遂退居龍湖, 足不到城市者六年…”

12) 『朝鮮王朝實錄』 권34 「仁祖實錄」 11쪽 “…反正後, 金鑿薦之甚力, 遂拜巡宣之職…”

野史에 의하면 김치가 推數에 精通하다하여 反正의 主모자 중의 한사람인 沈器遠이 反正에 앞서 찾아와 人조의 四柱를 보이자 김치가 거사일을 정해주었고 이런 陰功으로 인해 反正 후

객사한다.¹³⁾ 김득신의 母 泗川陸氏는 吏曹參判을 지낸 逗日堂 陸瞻의 女이고, 禮曹參判 陸鉞 欽·戶曹參判 陸長欽·江陵府使 陸大欽 등은 柏谷의 外叔이 된다. 柏谷의 妻는 慶州金氏로 承文院判校 金聲發의 女이자 沖菴 金淨의 四代孫이 되며 三男二女를 두었다.

柏谷이 태어난 곳에 대한 기록은 없으나 그의 출생지에 대하여는 목천 백전리, 괴산 능촌, 청안현(현재의 증평)을 비정할 수 있을 것이다. 김득신의 가문이 괴산지역으로 이주한 것은 제학공 익달의 6대손인 金錫(1495~1534)¹⁴⁾이 처음으로 보인다. 金錫은 김득신의 4대조이니, 조선 중종조에 진사에 급제하고 靜庵 趙光祖의 문인으로 기묘사화로 조정암이 화를 당하자 외가인 의성김씨들이 많이 살고 있는 槐山 典法里에 내려와 은거하였다 한다. 『栢谷集』 <醉默堂記>에는 백곡의 부친이 분묘를 위해서 辛丑年(1601)부터 4년간 괴산군 능촌리 방아재에 머무르고 있었던 것으로 나온다. 백곡이 <醉默堂記>를 지으면서 이 일을 서두에 언급한 것은 아마도 괴산지역과 인연 맺은 맨 처음 때임을 말하고자 한 듯하다.

김석의 선대는 경기도 일대에 자리 잡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데 부친인 언묵의 묘소는 시흥이며 그 선대들의 묘소도 거의 경기도 일원이다. 다만 김석의 모친 의성김씨는 괴산읍 수진리에 묘소를 잡았으니 친정동네요 이미 김석이 자리잡은 곳이다. 이후로 괴산일원은 이 집안의 세거지가 된다.

또한 목천 백전리에 터를 잡은 것은 金錫의 아들 충갑(1515~1575)¹⁵⁾이다. 그는 1546(명종 1년)별시 문과에 급제하여 지평, 헌납, 북평사, 안악군수 등을 역임하였으며 을사사화 때 서울 양재역 벽서사건에 연루되어 削職되고, 서청주에 유배되어 목천 백전리의 이성춘의 女를 취하여 이 마을에 살았다. 이후로 괴산과 목천이 집안의 근거지가 된다.

그런데 괴산과 청안은 이웃이요 또 김석이 처음 낙향한 전법리가 청안과 가까운 곳이니 자연스레 청안에 자리를 잡은 것으로 보인다. 김득신이 “어릴 때에 부친과 같이 청당현에 살았다하고¹⁶⁾, 김치가 경상관찰사로 부임해 객사하니 청당현 율협으로 운구하여 장사지내며 후에 김득신도 그 아래 묻히고, 취묵당을 건립하면서 淸塘太守(淸安)에게 도움을 청하였다는 것들은 김득신의 본거지가 청안이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또한 김득신이 金緞의 생가 친형으로 증평(당시 청안현 삼성당)에 살던 金緞으로부터 글을 배웠다고 전해지는데 김급은 통진현감을 지냈고, 묘소는 증평읍 미암리에 있다. 따라서 김득신의 출생지는 청안(증평)일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어쨌든 그는 청안과 괴산을 중심으로 생활근거지를 삼았으며 조부가 살던 백전리의 구제를 드나들었던 것이다.

김득신은 母親 有孕時에 父親이 老子를 現夢했다 하여 幼名을 ‘夢聘’이라 했다. 그는 어려서 몹시 魯鈍하여¹⁷⁾ 10살이 되어서야 비로소 父親에게서 『史略』을 배웠는데 3일이 지나도록 제대로 읽지도 못했다 한다. 이러한 그의 노둔함은 훗날 많은 일화를 남긴다.¹⁸⁾ 父親은

에는 禍를 모면하게 되었다고 한다. 『大東奇聞』 卷之三 <金緞得水姓免禍> 참조.

13) <贈輝上人詩序> 135쪽 “...先君按節嶺之南, 未幾, 棄代于福州客舍...”. 金緞의 著書로는 「深谷秘訣」과 『南峯集』이 있으나, 『南峯集』은 그 일부만이 傳한다.

14) 김석은 영의정에 추증되었고 묘소는 槐山邑 陵村里 방아재에 있으며 그의 아들 金悌甲이 쓴 묘갈이 있다.

15) 그의 묘소는 中原郡 塗味面 武陵洞에 있었으나 槐山邑 陵村里로 遷封하였다.

16) 贈輝上人時序 참조. (自癸丑甲寅之歲 上人得謁於先君 其時先君奠居淸塘縣鷓鴣矣)

17) <行狀草> 에는 어려서 痘疾(천연두)을 심하게 앓은 결과라고 나와 있다.

18) 『栢谷集』(민족문화추진회, 1993)<附錄> 및 『栢谷集』(태학사영인본, 1985) <栢谷文集>景刊序 그리고 金台俊의 『朝鮮漢文學史』(조선어문학회, 1931) 174쪽. 『槐山郡誌』(槐山郡誌編纂委員會, 1990) 676쪽. 이가원의 『韓國漢文學史』(보성문화사, 1988) 291쪽 外에도 여러 곳에 실려있다.

이런 그에게 더욱 분발할 것을 독려했고, 그 뒤로 열심히 노력했으나 文보다는 聯詩를 짓는 등 詩에 才能을 보이기 시작했다.

21세 때에 부친상을 당하고, 解喪하던 24세에 그는 外三寸인 陸敍欽으로부터 文辭의 시험을 통해 비로소 詩才를 인정받게 되는데 그 詩는 다음과 같다.

星斗欄干月滿天	북두성은 난간에 걸려 있고 달빛은 하늘에 가득한데
石池秋光銷寒烟	石池는 가을 색 깊어 차가운 안개에 잠겼어라.
黃花依舊樽仍在	예로운 국화는 만발하였고 술항아리도 그대로이니
千載陶君若箇邊	그 옛날 도연명이 여기에 있는 듯 하네.

<行狀草>中, 附錄, 227쪽

백곡은 이로써 陸敍欽의 칭찬과 함께 주위 文人들로부터 詩로 크게 세상에 떨칠 것이라는 評을 듣는다. 그로부터 發憤忘食하며 文墨에 힘썼고 詩에 대한 공부는 더욱 각별했다. 그 뒤로 점차 詩名을 얻게 되어 당대의 漢文 大家인 澤堂 李植(1584~1647)에게 인정을 받기에 이르렀고, <龍湖>와 <漢江> 등의 시는 孝宗이 御覽하기까지 한다. 그러나 그 역시 여느 門閥의 자손과 같이 出仕에 뜻을 두고 여러번 科試에 응했지만 번번이 낙방했다. 그러나 60살까지는 과거에 응해 보라는 평소 父親의 命에 따라 글공부에 전념하게 된다.¹⁹⁾

27세 때에는 山寺와 槐山 일대를 다니며 文章 修業에 매진했는데 그 당시 惠正上人에게 준 글을 살펴본다.

…庚午年에 책상자를 메고 사찰에 가서 諷讀한 지 십여년… 그 뒤 湖西에 가서 글을 본 것이 십년, 다시 서울로 돌아온 지 벌써 사년. 저번 때 落榜하여 뜻을 얻지 못해 또 다시 자네가 있는 곳에 가서 얻어먹기를 예전 절에 있을 때와 같이 하고 있어 이제 손뽀아 세어보니 어언 삼십여년이 아닌가…²⁰⁾

山寺와 京鄉 등지를 두루 다니며 글공부를 했으나, 결국 또 落榜의 苦杯를 마시게 되고, 다시 山寺로 향하게 되는 이런 반복의 기간이 벌써 30년을 넘어서게 되는 데에 대한 悔恨이 담겨 있다. 그러나 柏谷은 포기하지 않고 글공부를 계속하게 되는데, 그 당시부터 시작된 엄청난 蠲수의 讀書는 <古文三十六首讀數記>에 잘 나타나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獲麟解·師說·送高閑上人序·藍田縣丞廳壁記·送窮文·燕喜亭記·至鄧州北寄上襄陽于相公書·應科目時與人書·送區冊序·張君墓碣銘·馬說·朽者王承福傳 읽기를 일만 삼천 번, 鱷魚文 읽기를 일만 사천 번, 鄭尙書序·送董邵南序 읽기를 일만 삼천 번, 十九日復上書 읽기를 일만 삼천 번, 上兵部李侍郎書·送廖道士序 읽기를 일만 삼천 번, 龍說 읽기를 이만 번, 伯夷傳 읽기를 일억 일만 일천 번, 老子傳 읽기를 이만 번, 分王 읽기를 이만 번, 霹靂琴 읽기를 이만 번, 齊策 읽기를 일만 육천 번, 凌虛臺記 읽기를 이만 오백 번, 鬼神章 읽기를 일만 팔천 번, 衣錦章 읽기를 이

19) <墓碣銘> 226쪽 “…屢進屢屈, 以安與君命限六十應舉…”

20) <贈惠正上人序> 134쪽~135쪽 “…庚午歲, 擔書笈 往羅刹, 諷讀至十餘祀…其後往湖西閱十稔, 復歸洛社已四載, 乃者飲墨困不得志, 又抵爾所, 乞爾炊飯如住羅刹時, 而今屈指已三十餘年耶…”

만 번, 補亡章 읽기를 이만 번, 木假山記 읽기를 이만 번, 祭歐陽文 읽기를 일만 팔천 번, 薛存義送元秀才·周策 읽기를 일만 오천 번, 中庸序 이만 번, 百里奚章 일만 오천 번을 甲戌年부터 庚戌年까지 읽었는데 그 사이에 莊子·史記·漢書·大學·中庸은 자주 읽었으되 만 번이 되지 않은 것은 여기에 신지 않았을 뿐이다. 만일 後孫들이 내 <讀數記>를 본다면 내가 게으르지 않았음을 알 것이다. 庚戌年 늦여름에 柏谷 늪은이가 槐州 醉默堂에서 쓰노라.²¹⁾

31세(1634)때부터 67세(1670)때까지 36년 동안 36篇의 古文 讀破를 반복하고는 <讀數記>를 지었는데 거기서 그는 古文을 통해 다양한 各體를 體得함²²⁾ 아울러 후손들에게 勉學의 敎訓을 남기고 있는데, 여기서 出仕에 대한 그의 집념을 엿볼 수 있다. 이런 독서는 詩學의 형성과정에 있어서도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뒷날 그 결과는 39세(1642 : 仁祖 20년)가 되어서야 進士科 합격으로 나타난다. 그 때 지은 詩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百鬼於我戲劇多 온갖 귀신들이 장난을 많이 쳐서인지
 其如時命柰蹉跎 時運과 命途는 왜 이다지도 어긋날까.
 韓文馬史千廻讀 한유의 글과 사마천의 사기를 천 번이나 읽었거늘
 僅捷今年進士科 올해서야 겨우 진사과에 붙었네.
 <壬午戲吟> 43쪽

이렇듯 出仕가 더딘 데에는 起·承句에서 暗示하듯이 朋黨간의 알력으로 인해 기회를 얻지 못함도 있겠거니와, 轉·結句에서 알 수 있듯이 柏谷은 노둔한 人物로 定評이 나있는 터, 스스로 애써서 알았다고 할 정도여서 科文에 있어 자신의 문장력이 모자람을 認知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古文을 통해서 여러 文體를 습득하기 위해 집요한 多讀을 감행했던 그의 우직함도 작용했을 것이다. 그 외에도 자신을 薦舉해 줄 知己를 만나지 못해서라고도 했²³⁾, 당시 科擧 文章과 관행 風俗과는 서로 어긋나 있었다는 말²⁴⁾도 있다.

小科에 통과한 그는 陰敍로 肅寧殿 參奉職을 받게 되자 평소 蔭官에 뜻을 두고 있지 않은 터라 취임하지 않으려 했지만 外叔이 偏老母에 봉양을 들어 強勸함에 마지못해 나아간다. 그러나 그는 얼마후 辭退하게 되는데, 이 시기의 心情을 시로써 그려내고 있다.

禁直春將晚 흐드러진 봄날 禁中에서 숙직하노라니
 歸心怒馬騰 고향으로 내달는 마음 성난 말 날뛰듯.

21) <古文三十六首讀數記> 164쪽 참조. 부록편(234쪽)에도 같은 해에 지은 것으로 되어있는, 거의 같은 내용의 <讀數記>가 실려 있다. 거기에는 “伯夷傳讀, 一億一萬三千番” 이라고 나오는데 後人들은 이 숫자를 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 金由憲은 <書讀數記後> (235쪽)에서 “十千爲萬, 百千爲億” 이라하여 당시의 ‘億’ 이라는 숫자의 개념을 明示하고 있다. 좌우간 柏谷은 이로 말미암아 자기의 書齋를 ‘億萬齋’ 라고 명명한다.

22) <讀數記> 234쪽~235쪽 참조.

23) <與友人序> 151쪽 “…司馬相如李白皆能文章而困阨, 然揚得意薦司馬相如, 賀監薦李白, 終售其才”

<偶吟> 61쪽 “…吹噓人不遇, 官似上竿鮎…”

<次韻> 62쪽 “…世乏吹噓者, 難逢乞火通…”

24) <墓碣銘> 226쪽 “…其科擧文與俗, 尙詭…”

無朋又無酒 벗이 있나 술이 있나
 憎殺月如燈 휘황한 저 달빛 너살짓누나.
 <題肅寧殿壁上> 19쪽

鄉關物色因人聽 남에게 고향 소식 들으니
 柳欲黃金花欲燃 버들은 황금빛 띠었고 꽃은 타는 듯 붉다네.
 羈縻一官恒銷直 하찮은 벼슬에 얽매어 늘 속직에 시달리니
 心如渴馬走長川 마음은 목마른 말이 냇가로 달리 듯 하네.
 <走筆贈人> 40쪽

실로 괴로운 심사 그대로이다. 이에 사직한 柏谷은 다시 책상자를 짚어지고 글공부에 들어간다. 한편 이에 앞서 33세 때에 丙子胡亂(仁祖14年 12月)을 겪게 되는 데 그 당시에 느끼게 되는 참담함과 불안함이 詩人에게 그대로 투영된다. 그 가운데 한 首를 보면 다음과 같다.

風塵一別洛陽家 난리통에 한 번 서울 집 떠난 뒤로
 獨抱深愁亂似麻 홀로 깊은 시름에 얼얼킨 마음 실타래 같네.
 窮谷積陰春意懶 궁벽한 산골이라 쌓인 陰冷한 기운에 봄도 더더
 小梅寒勒不開花 추위에 눌린 매화는 피지도 못한다네.
 <丙子避亂初作> 5 수 중 첫째 수, 33쪽

병란을 피해 가 있었던 嶺南 善州²⁵⁾에서 지은 것으로 보이는 이 시에서 백곡은 오랑캐에게 짓밟히는 나라에 대한 우려와 가족 친지에 대한 걱정으로 그저 心亂하기만 하다. 더욱 선달 추위 속에서의 피란 생활은 ‘추위에 짓눌린 작은 매화’로 밖에 표현할 수 없었던 처지를 암담한 심정으로 그려내고 있다.

그 뒤에도 金得臣은 여러번 과거를 치렀으나, 거듭 落榜의 좌절을 겪게 된다. 그 때에 지은 詩가 문집에 보인다.

腐儒飲墨谷神驚 썩은 선비 낙방하니 谷神도 놀라
 題柱心期又未成 다리 기둥에 쓴 마음 속의 기약은 또 이루지 못하네.
 鷄岳葉凋看石骨 계룡산 나뭇잎 지니 바위 드러나고
 熊津風急聽波聲 곰나루 바람 몰아치니 파도소리 들겠네.
 橐中詩草千篇富 행랑 속에 草한 詩篇 수천으로 늘었고
 鏡裡衰毛兩鬢生 거울에 비친 백발 양 구렛나루에 더부룩하네.
 羸馬不前頻蹶足 파리한 말은 절룩이며 잘 가지 못하니
 黃昏始踏木川程 저물녘이 되어서야 목천길로 접어드네.
 <公山途中> 2 수 중 둘째 수, 103쪽

落榜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읊은 詩인데 참으로 처량하고 참담하기 그지없다.

25) <黃僉知慶壽宴序> 137쪽 “…丙子, 獐兵大猺, 余避地善州…”

이에 주위 사람들은 그를 두고 詩가 사람을 窮하게 만들었다고도 한다.²⁶⁾ 그러나 59세 되던 현종 3년(1662) 3월에 그의 宿願이 이루어진다. 增廣試 丙科에 及第하여 비로소 宦路에 오르게 된 것이다. 年老하다하여 成均學諭로 任命된 것을 시작으로 成均典籍·兵工禮曹佐郎·洪川縣監·江原都事·成均直講·旌善郡守·豊基郡守·成均司藝·司憲府掌令·濟用監正·司僕寺正·軍資監正·宗簿寺正·司導寺正·承文院判校·掌樂院正을 拜官받는다. 그러나 벼슬길은 순탄하지 않아서 洪川縣監과 旌善郡守로 부임할 때는 臺臣과 宰臣들이 ‘김득신은 詩人일 뿐 일에는 關疎해서 그 職에 적합하지 않다’고 저지하여 부임하지 못했고, 掌令은 두 번 제수되지만 역시 ‘不合本職’으로 탄핵 받기도 했다.²⁷⁾

我不尤人不怨天	내 남보다 낫지 못해 하늘 원망 았았다네
都將得失付忘筌	득이거나 실이거나 모두 망전에 부쳤네
西湖飽喫鱸魚鱠	서호(西湖)에서 농어회를 배불리 먹었으니
何必銅章佩暮年	늘그막에 동장을 차야만 한다더냐

<未赴洪州偶吟>

그러던 중 그는 出仕가 오히려 禍機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²⁸⁾ 素願했던 대로 辭職 落鄉²⁹⁾하여 醉默堂³⁰⁾에서 飲酒賦詩로 自娛한다. 이렇듯 柏谷은 벼슬과는 인연이 없었고, 그도 또한 世上과 더불어 抹殺되면서까지 벼슬하는 데에는 뜻이 없었으며, 남들과 같이 浮沈하고 싶지 않았다고 한다.³¹⁾ 78세 때에는 世勳으로 通政大夫가 되고, 80세에는 優老의 恩典으로 嘉善大夫로 位階가 올랐으며 安豊君으로 襲封된다. 81세 때에 醉默堂에서 생을 마치는 데, 그의 죽음에 대해서 「肅宗實錄」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김득신은 젊어서부터 글을 읽었고, 늙어서는 더욱 부지런했으되, 사람됨이 우월하여 때에 쓰이지는 못했다. 충청도 괴산땅에 우거하고 있었는데 도적에게 살해되었다…³²⁾

이상의 考察로 볼 때, 柏谷의 삶은 길고 긴 文章修練期를 감내하며 立身揚名을 향한 의지로 점철된 求宦期, 黨爭으로 인한 彈劾과 誹謗으로 얼룩지고 짧았던 仕宦期, 名利를 버리고 醉默堂에서 終生했던 致仕期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결국 이런 불우했던 삶과 인조반정·정묘호란·병자호란같은 처참한 경험들은 그로 하여금 詩에 전념하게 한 계기로 작용했을 것

26) <行狀草> 228쪽 “…其後屢舉不中, 人以詩能窮人目之…”

27) <行狀草> 229쪽 및 「顯宗實錄」顯宗 十年 乙酉 三月 참조.

28) 『安東金氏大同譜』 前揭書 207쪽 “…晩年登第, 知士禍將起, 退遷槐安…”

<息波亭序> 144쪽 “…世之求名利之人, 不息其爭而終陷於禍機…”

29) <晩香堂序> (138쪽)에서 “今年秋, 余且休官歸槐鄉” 이라고 말한 걸로 보아 59세부터 74세까지(16년간) 進退를 거듭한 것으로 보인다.

30) 槐山郡 槐山邑 陵村里 所在. 木造 1棟으로 柏谷이 登第하던 해(현종 3년, 1662)에 건립. 一稱 ‘億萬齋’

31) <行狀草> 229쪽 참조

32) 「肅宗實錄」肅宗 10年 甲子 九月 “…得臣自少讀書, 老而益勤, 爲人迂闊, 無用於時, 寓居于忠清道槐山地, 爲明火賊所殺…”. 金得臣의 墓는 忠北 槐山郡 曾坪邑 栗里에 있다.

이며 그럴수록 문학에 뜻을 두고 시를 짓고 다듬는 것이야말로 자기 생애를 보람있게 하는 길이라 굳게 여겼을 것이다. 그의 시에 대한 愛着은 몸을 상하게 할 정도였는데³³⁾ 글자를 놓을 때마다 고심고심했던 苦吟과 一字千鍊의 功은 그를 유명하게 만들었다. 또 그런 자세로 평생을 통한 習作은 그로 하여금 詩鑑識眼을 갖게 했다. 그의 著作 중 詩話集 《終南叢志》가 그것이다. 그 밖에 『柏谷集』은 그가 일생동안의 저술을 모은 문집이다.

2. 師承 및 交友關係

生涯에서 언급했듯이 柏谷 金得臣은 어려서 父親 金綴에게서 글을 배웠는데, 그의 부친은 易學에 정통했다고 하는 鄭介淸의 門人 花川正에게 글을 배웠다 한다.³⁴⁾ 金綴 또한 推數에 밝았으며 金得臣도 觀相을 잘 봤다고³⁵⁾한 것으로 보아 易學을 父傳한 듯하다. 柏谷의 就學은 타고난 노둔 때문에 家學으로 이루어진 듯하며, 그 또한 이런 약점을 인식하고 꾸준한 多讀으로 自得의 妙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다음 글에서 그러한 점을 알 수가 있다.

옛날이나 지금에 학문으로 성공한 선비는 부지런함으로써 이룩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우리나라에 문장으로 크게 울린 분들로서 글을 많이 읽은 분들은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다. …나는 태생이 노둔해서 다른 사람보다 배나 읽었으니…그 중에서 <백이전>을 가장 좋아해서 일억 일만 삼천번이나 읽고는 서재를 억만재라고 이름지었다…³⁶⁾

그 밖에 뚜렷한 師承關係에 대한 기록은 없으나³⁷⁾ 澤堂 李植에게 가르침을 받으러 가니 택당이 말하길 ‘자네의 名聲은 벌써 들은 지 오래고 이제 詩文을 보니 당대 제일이라고 했다’는 기록³⁸⁾으로 보아 직접 門下에서 수학했다기 보다는 당대 漢文大家로부터 인정을 받는데 그친 것 같다.

그는 글공부를 위해 오랫동안 山寺를 다녔는데 그때 승려들과 交遊關係를 맺게 됐고 그 交流는 평생에 걸쳐 이루어졌다. 다음은 惠正이란 승려에게 써준 詩이다.

儒釋雖殊道	儒와 佛은 비록 道는 다르나
婆娑三十年	이러저러 삼십년을 지냈지.
他生如竝世	행어나 來生에 다시 만나면
與爾共參禪	우리 함께 참선이나 하세.

<贈惠正> 22쪽

33) <宿仲久草堂偶吟> 114쪽 참조. 이 외의 詩에서도 散見된다.

34) 『안동김씨대동보』 前揭書. 206쪽~207쪽 “嘗受業於鄭困齋介淸門花川正”
<府君行狀> 187쪽 “…又學於宗室花川正…”

35) <墓碣銘> 226쪽 “…始公善相人, 多奇驗…”, 그 밖에 <記聞錄>에도 실려 있다.

36) 《終南叢志》“…古今績學之士, 靡不以勤致之, 我同文章鉅公, 多讀書者, 亦可歷數, 余, 性魯鈍, 所讀之功, 倍他人, 而其中, 最喜伯夷傳, 讀至一億一萬三千算, 遂名小窩曰億萬齋…”

37) 그 밖에 竹窓 姜籀(1567~1650)에게서 問字했다는 기록이 나오기도 함, <竹窓集跋> 165쪽 참조.

38) <行狀草> 228쪽 참조. 李瑞雨의 『栢谷集』序(233쪽)에 보면 金得臣의 詩文이 당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다가 李植에게 인정을 받은 뒤로 이름을 크게 떨쳤다고 한다.

金得臣 자신이 佛敎에 사상적으로 얼마나 傾倒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詩나 序文·跋 등을 써 준 것으로 보아 禪僧들과 가깝게 지냈음을 알 수 있고, 아울러 그들과의 교류를 통해 禪敎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것이며, 그의 思想과 문학에도 다소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그가 교류했던 승려로는 壬丙亂 당시 승병장을 지낸 碧巖大師를 비롯하여 惠正, 輝上人, 金剛山上人, 眞一上人, 靑龍上人, 五臺山僧, 法藏上人, 玄哲上人, 處林上人, 卓靈上人, 長水寺僧, 白雲上人, 具策上人, 法心 등이 있었다.³⁹⁾

그 당시에 道家의 서적은 儒家에 있어서 外道였고 그로 인해 虛誕한 데로 빠질 수 있다하여 禁忌視해 왔으나 일반 文人은 물론 大儒를 자처하는 이들까지도 공공연히 耽讀했었다. 金得臣 또한 <讀數記>에서 <老子傳>은 이만번 읽었으며 『莊子』도 많이 읽었다고 했고, <讀南堂序>에서는 莊周의 글이 文章의 奇法을 익히는데 있다⁴⁰⁾고 했지만 그것을 읽는 중에 隱然히 받았을 영향도 排除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음 詩는 그런 점을 더욱 확실하게 해준다.

老翁消渴甚	늙은이 소갈증이 심해
喚酒隔溪村	시내 건너 마을에서 술을 찾네.
衰世將何事	허탄한 세상 장차 무엇을 할까
安排學漆園	어찌 莊子 배우길 저버리리오.

<題村壁> 20쪽

무력해진 자신이 처한 쇠한 세상에서 處世의 次善策을 『莊子』에서 찾으려 함을 알 수 있다. 또 <贈龜谷詩序>에서는 ‘理’를 老子的 『道德經』에서 깨달을 수 있다⁴¹⁾고 한 것으로 보아 道家에 대해 상당한 이해와 受容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대대로 道仙家로 이름난 집안 출신의 鄭斗卿이나 洪萬宗 같은 인물들과의 교류를 통해서도 많은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한편, 金得臣은 唐詩를 애호한 學唐派 시인 鄭斗卿·任有後·洪錫箕와 교류하여 조선중기 三唐詩人과 비슷한 ‘四唐詩友會’를 결성해서 활동했으며⁴²⁾ 그밖에 交流가 있던 文人들로는 八文章의 任翰伯, 書畫家 南宮鈺, 李廷龜의 손자 文肅公 李一相, 崔煥 등이 있었고, 그 밖에도 敦寧府都正 金震標, 漢城府左尹 嚴鼎耆, 槐州太守 閔汝鎮, 崔佑聖 兄弟, 張留 兄弟, 林可材, 李德培, 洪顯宇, 趙益諒, 權伉, 申大吾, 尹挺莘, 南宮汝相, 李雲根, 李宗海, 趙顯錫, 金夏鼎, 沈愷, 金摺, 李萬憲, 李達孝 등 여러 명이 있다.⁴³⁾ 이 중에서 知心之友, 管鮑⁴⁴⁾ 또는 莫逆之交, 異姓天倫⁴⁵⁾이라고 일컬어졌던 平生之友는 久堂 朴長遠(1612~1671)이었는데 그는 어릴 때 柏谷의 父親에게서 受學하였다고 한다. 『柏谷集』에도 그와 화답한 詩가 다수 실려있다.

39) 『柏谷集』 詩篇에 근거함.

40) <讀南堂序> 144쪽 “...爲文者, 不嗜南華之奇法而未有能成文章者也...”

41) <贈龜谷詩序> 151쪽 “...昔聞治道德經, 昨年往見, 案有其經, 必悟理於道德經無疑...”

42) 吳靈錫, 《洪萬宗詩評攷》 『語文研究』 19권 70·71合併號 (韓國語文教育研究會, 1991. 10) 213쪽 참조.

43) 『柏谷集』에 근거함.

44) <記聞錄> 237쪽 참조.

45) <行狀草> 229쪽 참조.

다음은 박장원을 생각하며 지은 시이다.

臨江苦憶鬢毛皚	자네 그리다 귀밑머리 세는데
遠信初逢雙鯉來	먼데서 온 소식 편지로 받아보네
湖外草堂門晝閉	호외(湖外)에서 대낮에도 문 닫고 있으려니
一庭微雨墜殘梅	뜰 한쪽에선 가랑비에 매화꽃 진다

<見朴正言書偶吟>

이상으로 살펴보면 金得臣은 뚜렷한 사승관계가 없었으며 주로 讀書師承을 통해 자기의 學問을 이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양한 교유관계로 인해 여러 思想을 접하게 되면서 儒佛仙 등 모든 사상이 한데 어우러져 그의 사상에 基底가 되었을 것이다. 또한 이런 사상은 진취적이고 조화로운 文學觀으로 정립되는 데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Ⅲ. 맺는 말

지금까지 柏谷 金得臣의 家系와 生涯, 師友關係를 고찰하면서 그것이 투영된 시를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論議한 本稿의 내용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백곡은 비교적 우수한 가문에서 태어났으나 몹시 魯鈍하여 그의 문학적 재질이 일찍 발휘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부친 金縑의 독려로 학업에 몰두하여 40여년에 걸친 꾸준한 독서와 시에 대한 공부, 그리고 澤堂 李植의 推獎에 힘입어 한 시대에 詩名을 올리게 되었다. 한편 그의 나이 59세(孝宗 3년) 때 曾廣文科에 급제한 이후로 진퇴를 거듭하며 74세(肅宗 3년)에 歸休할 때까지 약 16년에 걸쳐 儒者로서의 理想社會를 구현하고자 出仕하여 政治現實에도 참여하였으나, 정치현실이나 그의 성격으로 해서 벼슬길은 순탄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런 여건은 오히려 시에 전념하게 되는 계기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백곡의 문집 『柏谷集』에는 1,610수의 시가 실려 있다. 결코 적지 않은 수이다. 이들 시속에는 백곡의 삶의 역정이 고스란히 투영되어 있다. 시를 읽으면 사람됨을 알 수 있다는 동양의 전통적 시관을 바탕으로 두지 않더라도, 백곡의 시를 읽으면 진솔하게 그려진 그의 삶을 확인할 수 있다. 본고에 제시된 백곡의 시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거기에서 백곡 삶의 굴곡을 살피는 데에는 무리가 없으니라 생각된다. 그만큼 백곡은 자신의 삶을 시를 통해 고스란히 기록하였던 것이다. 그에게 있어 시는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백곡은 오랫동안 부친에게서 사사 받은 결과 사승관계에 대한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택당 이석에게 수학하려다 그에게 인정을 받은 것으로 그쳤다는 기록을 볼 수가 있다.

백곡이 교유 관계를 맺어 온 인물들은 고관대작으로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어느 한 계층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그의 생애를 통해 이미 확인한 바와 같이 평생 학문을 수련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가 平生에 交遊했던 인물들은 朴長遠·任翰伯·洪萬宗·南宮鈺·李一相等의 여러 文人과 승병장을 지낸 碧巖大師를 비롯해 많은 승려들이 있었다. 특히 唐詩를 애호하는 學唐派 시인들로서 鄭斗卿·任有後·洪錫箕 등과 함께 조선중기 ‘三唐詩人’과 유사한 ‘四唐詩友會’를 결성해서 활동하기도 했다. 그의 이러한 활동은 그의 詩學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백곡 김득신은 노둔한 천품에도 불구하고 후천적인 노력을 통하여 詩로 一家를 이룬 苦吟

과 多讀으로 유명한 인물이다. 본고는 김득신의 생애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되는 詩를 소개하면서, 그의 생애가 시 세계에 어떻게 투영되고 있는지를 간략히 살펴보았다. 김득신의 폭넓은 시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생각한 것이다.

參考文獻

I. 資 料

- 金得臣, 『柏谷集』, 韓國文集叢刊 104 (民族文化推進會, 1993)
——, 『栢谷集』 (太學社 영인본, 1985)
洪萬宗, 『洪萬宗全集』 上·下 (太學社 영인본, 1983)
——, 『詩話叢林』, 洪贊裕 譯註 (通文館, 1993)
——, 『小華詩評』, 安大會 譯注 (國學資料院, 1993)
權 輶, 『石洲集』, 韓國文集叢刊 75 (民族文化推進會, 1991)
李 植, 『澤堂集』, 韓國文集叢刊 88 (民族文化推進會, 1992)
許 筠, 『惺所覆瓿藁』, 韓國文集叢刊 74 (民族文化推進會, 1991)
金昌協, 『農巖集』 (景仁文化社, 1990)
徐居正, 『東人詩話』 (二友出版社, 1980)
姜敷錫, 『大東奇聞』 (한양서원, 昭和 6年)
張志淵, 『大東詩選』
柳夢寅, 『於于野談』 (右文堂出版社, 1964)
莊 周, 『莊子』, 안동립 역주 (현암사, 1993)
劉 勰, 『文心雕龍』, 崔信浩 譯 (玄岩社, 1990)
嚴 羽, 『滄浪詩話』 (廣文書局, 1972)
『國朝人物志』
『朝鮮名臣錄』
『朝鮮王朝實錄』 권23 ~ 권33 (국사편찬위원회, 1970)
『槐山郡誌』 (괴산군지편찬위원회, 1990)
『人物誌』 (충청북도, 1987)
『증평의 뿌리를 찾아서』 제4호 (증평문화원 증평향토문화연구회, 1995)